"인생 망칩니다"…단속 50분만에 대낮 음주운전 적발

광주시 서구 신서창교 인근 주간 음주단속 현장 가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072% '면허 정지' 수치… '2진 아웃'에 면허 취소 경찰 "처벌 받고도 재범 잇따라…음주운전 근절 위해 특별 단속 실시"

"음주 감지! 음주 감지! 지원 바람!"

6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서창동 신서 창교 인근에서 날카로운 '삐' 신호음이 울려퍼졌다.

이곳에서는 광주경찰청의 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었다. 아직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대낮인데도, 단속 시작 50여분만에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음주감지기가 작동한 것이다.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갓길에 차를 세운 6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리자,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1시간여 전에 송정역 인근에서 지인과 반주를 했다는 A씨는 "얼마 안 마셨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씨가 음주측정기에 길게 숨을 불어 넣자, 측정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라는

숫자가 떴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였다. 또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하자, A씨의 표정 이 더욱 어두워졌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이력이 확인돼 꼼짝없이 '2진 아웃' 면허 취소 처분 을 받게 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대리운전사를 불러 귀가 조치시켰다.

이날 광주 5개구에서 실시한 주간단속에서 적발 된 음주운전자는 1명이었으며, 32명이 안전띠·안 전모 미착용,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통보처분을 받 았다. 최근 가을 행락철을 맞아 밤 뿐만 아니라 대낮까 지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음주단속을 할 때 마다 하루 한 명 이상 무조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나오는 상황이다"며 "날씨가 선선해 외 출하기 좋고 연말 연시가 가까워질수록 음주운전자 가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 는 경우도 부지기수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 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가 숨지 고 30대 딸이 크게 다쳤다. 지난달 25일 강남구 논 현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30대 음주운전자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숨지고 한국인 여성은 중 상을 입었다.

광주에서도 6일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30대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지난달 4일 새벽 북구 임동 미소래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8일에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 지 사거리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 든 30대 지명수배범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



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신서창교 인근에서 광주경찰이 음주 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단속에 적발된 한 운전자가 신원조회 결과 과거 음주로 적발된 이력이 확인돼 '2진 아웃' 으로 면허 취소 안내를 받고 있다.

혔다. 같은 달 13일에는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붙잡혔으며, 4일에는 광양 남해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5중 추돌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음주운전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 년간 광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2020년 4327건, 2021년 4031건, 2022년 4403건, 2023년 4581건, 2024년 3853건이었다. 전남에서는 2020 년 5709건, 2021년 5583건, 2022년 5722건, 2023년 6574건, 2024년 6124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반복되는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광주 일대에서 교통외근·순찰대·암행순찰대 등 경찰관 64명과 순찰차·오토바이 등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5대 반칙행위도 함께

집중 단속을 펼쳤다.

조창익 광주서부경찰 교통안전2팀장은 "이번 주 간 음주단속은 단순한 적발 목적이 아니라 '한순간 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 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가을 행락 철 광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1급 발암물질' 하남산단 지하수 정밀조사 착수

광주시 광산구가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 출된 하남산업단지 일대 지하수에 대해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시 광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와 공동으로 내년 10월까지 1년간 광산구 사암로 \sim 풍영정천 1.17k㎡ 구간에서 지하수 정밀 실태조사 를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광산구는 기존 관공 외 수질 분석을 위한 관측공 10곳을 신규 설치하고, 수질과 함께 관정 현황, 수 리 지질 조사 등을 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지하수 정화 대책 마련과 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 2023년 광주 하남산단에서 1급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됐음을 확인하고도 수년 동안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역사회 비판이 커지자 지난 7월부터 하남 산단 일대 지하수 관정 245곳의 수질을 긴급 검사 했다

검사 결과 하남산단 내 관정 69곳 중 16곳(공업 용 8곳, 생활용 8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 한 1급 발암물질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검출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후 속 조치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

를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용 8곳, 생활용 8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괴 광산구는 기존 관공 외 수질 분석을 위한 관측공 한 1급 발암물질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외

계획이다. "조사 결 방주 하남산단에서 1급

고1·학부모 10명 중 7명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입시학원 설문…'만족' 4.3% 그쳐

올해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폐 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만족도는 물론 과목 선택권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다수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접 과목 을 고르고 일정 성취수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받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종로학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응답자들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72.3%가 '폐지'라고 답했다.

이어 '축소'(13.8%), '현행 유지'(6.4%), '확 대'(5.3%) 순이었다.

고교학점제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75.5%가 '좋지 않다'를 택했다. '보통'은 20.2%, '좋다'는 4.3%에 불과했다.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엔 '아니다'가 67.0%로 다수였다. '그렇다' 는 13.8%였고, '보통'은 19.1%였다.

또 '향후 진로, 적성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가 76.6%, '학교적응 및 교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도 '부정적'이 48.9%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 응답이 상당수였다.

'고교학점제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이란 물음엔 '대학별 대입 유불리'가 6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로 및 적성' (27.7%), '친구' (2.1%), '선생님 조언' (1.1%) 순이었다.

'고교학점제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6.4%였는데 이들 중 60.4%는 '학원 또는 컨설팅 업체(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26.4%에 그쳤

'학교 내신이 불리해진 경우 고교학점제가 내신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에는 '아니 다'가 무려 83%를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모무안군 **H**5♀ YOUNG DREAM [인품 [인] 이루어지는 곳 2025. 11.14.(금)~11.16.(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중앙공원 일원

비온뒤 초겨울 추위

주말 사이 광주·전남에 비가 내리다가, 다음주 초 부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까지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8일 밤부터 차차 흐려져 광주·전 남 전역에 5㎜ 안팎의 비가 오겠다"고 6일 예보했 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11도, 최고 18~19 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아침최저기온은 5~13도, 낮최고기온은 19~ 22도로 예상되며, 8일에는 아침최저기온은 7~14 도, 낮최고기온은 18~21도를 보이겠다. 일요일인 9일에도 아침최저기온 11~15도, 낮최고기온은 18~21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0일부터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전날 대비 4~5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10일 아 침최저기온은 7~11도, 낮최고기온은 13~17도로

기상청 관계자는 "7일까지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며 "다음주 부터는 다시 추위가 시작될 전망이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 다"고 말했다. /유연재기자 yiyou@kwangju.co.kr